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기사 : 박숙미(socialworker@welfare.net)
사진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지역사회운동을 논함에 있어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곳이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 6월 창립한 단체이다. 단체 예산의 85%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될 만큼 이미 천안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월간 Social Worker 11월호에서는 지역복지운동탐방의 세 번째 단체로 복지세상을 찾아 지역사회운동의 대표적 단체로 자리매김하게 하게 된 역사와 대표적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단체와 사람을 키우는 사회복지인큐베이터

복지세상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인큐베이터 사업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기관을 찾아 지원해주는 것이다.

여타의 단체들의 사업을 자신들 안에서 풀어나가려 하고 단체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복지세상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 거리 캠페인을 통해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점검하기도 한다.

이 활동은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지역 단체에서 현장활동을 통해 체득하게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 시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또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자, 내부 운동 지도력들에게 교육 및 훈련의 장을 제공하여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발견하고 연

〈표1〉 복지인큐베이터 활동내용

구 분	추진계기	주요 프로그램	실무인력	기 타
미래를여는아이들	- IMF이후 천안지역 결식아동 발생	- 방과후교실, 그룹홈 - 지역아동복지포럼	사무국 : 4명 지역아동센터 : 2명 그룹홈 : 1명	98~03 03. 3. 창립
충남장애인부모회	- 소아과 의사 제안 - 다운증후군 회 만남	- 부모교육 세미나, 캠프 부모회 정례모임	천안지회 : 2명 주간보호센터 : 3명 청소년자립지원센터 : 3명 성인소규모자립작업장 : 1명	99~00 01. 2. 창립
충남여성장애인연대	- 미신고시설다니엘의 집 비리사건	- 여성장애인 쉼터 운영 - 소모임, 월례모임 - 교육 및 강좌 - 실태조사 및 포럼	사무국 : 3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5명	00~03 04. 1. 창립
지역사회정신건강을 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 정신요양시설 구생원 비리 사건	- 가족교육, 소모임지원 포럼		00~ 천안정신보건센터 개소
노인복지 건강센터 느티나무	- 사회복지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 일반노인 복지, 건강 - 중풍노인 주간보호	사무국 : 5명	03~05 05. 5. 사회복지법인

〈표2〉 사회복지 인큐베이터 사업 유형화

1단계	현안발생	시설비리, 대상자 발생 등
	↓	
	문제제기	여론화 및 의제화
	↓	
2단계	참여(실천)주체 발굴 및 조직	문제해결이나 접근을 위한 논의 구조나 주체 발굴, 결합
	↓	
	교육 및 조사연구	지도력 및 역량개발 현황 및 대안모색
	↓	
	자체 조직화	별도 영역별 의제화 및 조직 운영 가능성 논의
	↓	
3단계	개별 단체 독립	조직 : 유지지도력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실무지도력 – 사무국 재원 : 단체 독립 운영 가능성

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능력을 발전시켜 나간 중요한 경험을 주었다.

▲ 5. 31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지역내 단체 연대사업

복지세상은 스스로의 단체를 살찌우지 않는다. 지역복지의제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서 지역복지에 대한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의 협력과 연대의 경험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책사업,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사업을 들 수 있다.

천안시 사회복지정책평가 및 복지공약 제안

2002년 선거를 앞두고 '살고싶은복지조직천안네트워크'를 통해 공약을 만들어 제안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지역단체 10여 개가 협력해 33개의 복지공약을 만들어 시장 후보자에 제안하였다. 이는 그동안 비주류로 취급되던 사회복지를 보편적인 권리로 받아들이도록 조직하는 정책활동이었다. 이러한 지역의 연대활동은 타 지역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된 것은 물론 시에서도 관심갖고 민간단체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어 올해 531 선거에도 19개 단체 참가해 531 지방선거 복지천안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 정책활동을 펼쳤다. 이를 위한 준비활동으로 지난해부터 민선 3기 동안의 예산과 정책 등을 평가한 자체적 데이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보자 뿐아니라 정당에 23개의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선거 전 5.31 후보자 추천 토론회를 거쳤으며 현 시장이 23가지 중 20개를 받아들였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실로 대단하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지난해 천안시 16개 사회복지기관 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올해로 두 번째 천안시 예산규모 및 영역별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범주화를 진행하여 예산을 분석하고 확대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안하였다. 지난해 2006년 사회복지예산으로 천안시에 제안한 19개 사업 22억 8천만원의 예산제안내역 중 9개 9억 3천만원의 예산이 확대 혹은 신설되어 제안예산 중 41.2%의 반영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의 예산은 행정부에서 갖는 주요권한이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자체가, 복지운동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07년 예산제안사업 및 '531지방선거복지천안네트워크'에서 제안한 23가지 복지정책, 그리고 올해 수립된 천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민관의 협력에 의하여 작성한 계

▲ 2007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제안 토론회.

▲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 된 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획이 연차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책임있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의 총괄분석 및 제안에 덧붙여 각 영역별로 현재 청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현안분석 및 개선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의 천안시 사회복지예산분석 및 제안활동이 갖는 의의는 기술적인 예산분석 및 제안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수립 및 집행과정이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 한정되었던 것에서 지역의 시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정책의 내용적 균형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의미를 지닌다.

기타활동

- 회원 및 조직활동 : 본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존재와 권리에 대해 자각하여 주체적인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임을 조직하고 지원한다.
  - 신입회원 한마당, 회원 강좌 프로그램, 여성모임 알갱이 활동
- 청소년사업 :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사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이끌어내고 이타적인 미래 지도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청소년 동아리 나뭇가지 활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대학생연합동아리 보듬이의 창, 청소년활동지원 대학생 동아리
- 홍보출판 :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회보,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정보제공 및 회원과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미니인터뷰

이상희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간사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

■ 천안지역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

타 지역에 비해 지역 단체들간의 연대가 잘 되고 있다. 또 천안시에서도 매우 우호적이다. 복지세상에 대해 인정해주고 무시할 수 없는 연대활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정책활동과 예산활동 등을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긴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단체의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갖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연대활동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단순히 사업 혹은 활동이 목표가 아닌 실무자, 사회복지사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즉 사람을 키우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지역을 바라봐야 하는지 운동적 관점을 공유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단체들간의 연대 활동에 있어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간사단체로서 연대 활동에 있어 리드하고 총괄해야 한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의 개별 사정을 모르거나 각 단체의 여건이나 활동 등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간사단체 실무자로서 리드하고 총괄해야 하는데 경험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힘들다. 때문에 서적과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단체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힘든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매년 다르게, 진보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 알고 시혜가 아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세상의 큰 몫이라 생각한다. 또 사회복지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사회복지가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 되도록, 또 그런 참여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SW